모래내시장 특색 살려 경쟁력↑

전주시, 내년까지 9억2000만원 투입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

온라인 장보기 · 수제맥주 체험장 조성 · 특화 디자인 간판 · 시설 정비 등 지원

전주 모래내시장이 온라인 장보기와 수제맥주 체험이 가능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내년 12월까지 모래내시장에 국비 4억6,000만 원 등 총사업비 9억2,000만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의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전통시장을 특색 있는 쇼핑과 문화체험이 가능한 테마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모래내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대표 특화시장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비대면 온라인 장보기 도입 ▲수제맥주 체험장 조성 ▲공동디자인 간판 구축 ▲특화 이벤트 운영 ▲상인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비대면 소비 문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인 '놀장(놀러와요 시장)'에 상점들을 입점시키고, 근거리 배송서비스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모래내시장의 명물로 수제맥주 체험장을 구축해 시장 내 즐길거리를 강화하는 한편 모래내시장만의 특화 디자인을 만들어 간판과 기반시설을 쾌적하게 정비키로 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시장으로 학교가자', '모아마켓(모래내 아트 프리마켓)', '모래내시장에 나타난 보부상' 등 특화 이벤트도 지속 운영키로 했다.

시는 제로페이 및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상인들의 역량 강화에도 주력한다. 결제편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3대 고객서비스와 상인조직 강화, 안전 및 화재예방 등 2대 조직역량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인회 관계자로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은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착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모래내시장에서 치맥가맥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수제맥주 양조장을 조성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통시장도 대형마트와 편의점처럼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해지고 결제 방식도 다양해지는 등 편의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모래내시장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매력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래내시장은 1975년 개설 이후 현재 200여 개 점포, 450여 명의 종사자를 둔 덕진구 내의 유일한 전통시장이다. /김윤상 기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회원국에 전주 매력 홍보

스웨덴 · 대만 등 4개국 스카우트 연맹 회원 초청 팸투어 진행

전주시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회원국 참가자들의 관심 유발 및 전주시 주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새만금 일원에서 170여 개국 5만 명정도 참가하는 대회로 잼버리대회와 시·군을 연계한 사전·사후 문화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계획으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기대된다.

이번 팸투어는 국내에 거주한 스웨덴, 대만 등 4개국 스카우트 연맹 회원들을 초청해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판소리, 한지공예 체험 등 잼버리 대회 사전·사후관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도 함께 진행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공식 SNS채널과 전주시 관광 SNS 채널을 통해 전주를 알리게 된다.

먼저 29일에는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한지공예 만들기, 한옥특유의 쉼을 즐길 수 있는 한옥숙박체험과 한옥마당에서 즐기는 전통국악체험으로 전주의 전통문화와 음식을 즐기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어 30일에는 전주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에서 스케이팅 체험과 전주한옥마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로 외국인이 직접 체험한 전주의 모습을 각 나라에 알렸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전주는 론리플래닛, CNN, 트레블위클지 등 해외 주요 미디어로부터 대표적인 여행지로 언급돼 왔다"며 "그간 경험한 것과는 색다른 체험지이자 가장 한국적인 관광도시 전주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생명사랑 선도학교 사업' 운영

최근 청소년들의 자살시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하고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도 벌인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태원)는 지난 3월부터 ▲전라고 ▲기전중 ▲남중 ▲신흥중 ▲아중중 ▲완산중 등 6개 학교에서 청소년 자살률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생명사랑 선도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생명사랑 선도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증진 캠페인을 진행된다. 또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행동 훈련 ▲생명사랑 영화관람 ▲정신건강 도서 제공 ▲정신건강 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센터는 지난 3월 6개 학교와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명사랑 선도학교 현판과 배너를 배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재학생의 자해·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원 센터장은 "아동·청소년 자해 및 자살 시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덕진공원만의 축제 콘텐츠 발굴 모색

전주시, 관광 · 축제 분야 전문가들과 관광 세미나 개최

전주시가 덕진공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관광·축제 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8일 풍남동 소재 행원에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덕진공원의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관광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인평 전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미나에는 한호성 전 계룡군문화 축제 총감독과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 김정환 한국축제문화연구소 대표, 최용석 전북콘텐츠진흥원장, 김남규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해 덕진공원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한호성 전 총감독은 "축제장으로서의 덕진공원은 다소 협소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못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못에 수상무대를 만들어 미디어 파사드를 접목한 경관 중심의 콘텐츠를 세팅하고, 주변 둘레길에는 체험·전시콘텐츠를 넣어 축제장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주시는 지난 28일 풍남동 소재 행원에서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덕진공원의 축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관광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정환 대표는 "국내외 유명 오케스트라나 유명 아티스트를 연례적으로 초청해 공연을 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개발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12절기나 24절기 등 계절별 주제에 맞는 잊혀진 콘텐츠들도 재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의원은 "덕진공원부터 혼불문학공원, 건지산편백숲, 오송저수지, 전북대 캠퍼스 등을 순환하는 둘레길을 명품화해야 한다"면서 "덕진공원 맘껏숲 및 맘껏하우스와 연계한 가족과 어린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찬 교수는 성공적인 축제의 요소로 ▲대표 프로그램 ▲지역의 관심과 참여 성공을 위한 의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 ▲전문가 자문 등을 제시했고, 최용석 원장은 현실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수익성 등 콘텐츠 개발 전략 수립 시 필요한 체크사항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덕진공원이 지니고 있는 차별성을 활용해 최적의 축제 콘텐츠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가져

전주시가 자원봉사자들의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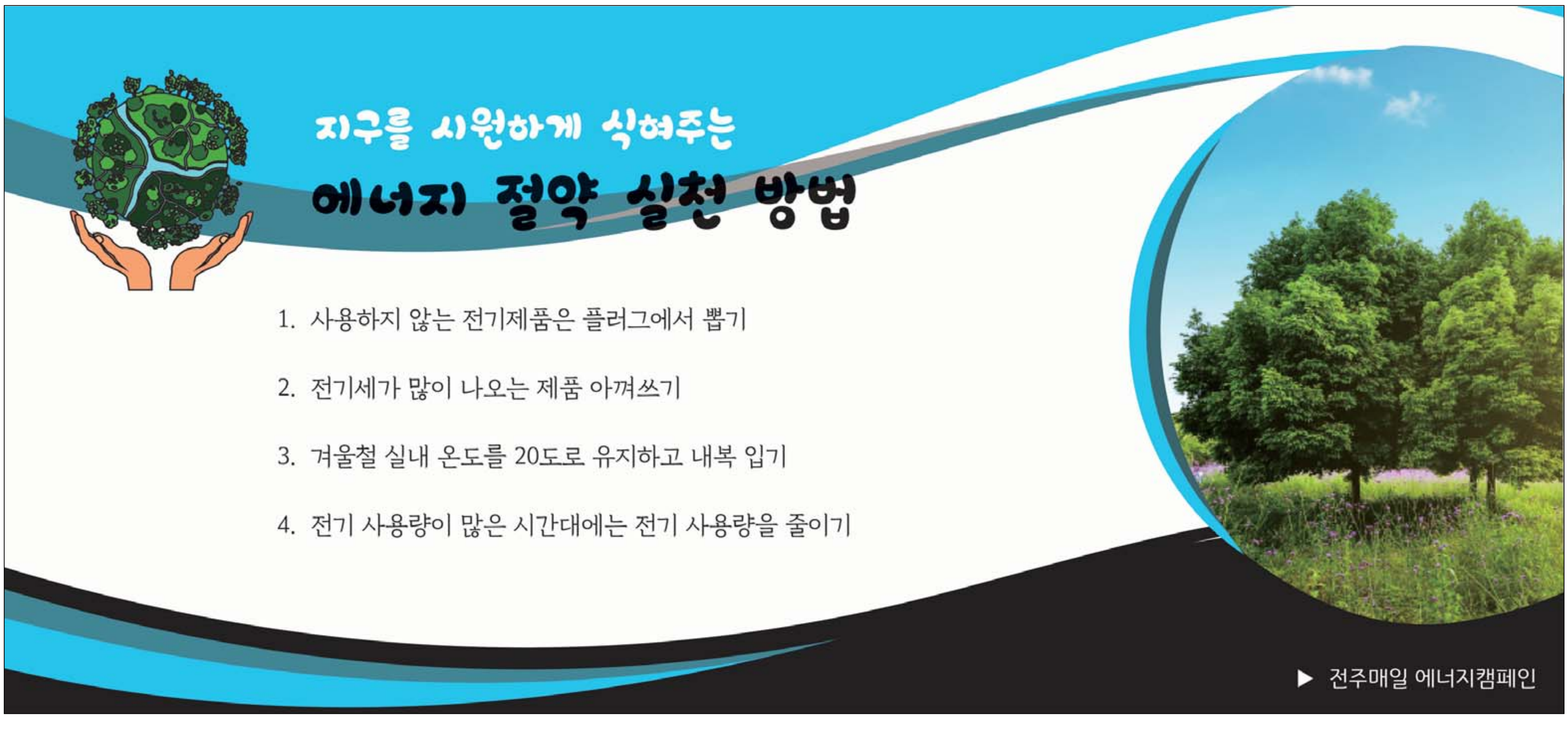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옥)는 지난 28일 전주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단장 박정석) 소속 자원봉사단체 회원 50여 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주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구다.

워크숍에는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인 김동훈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감염병 재난대응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전주시새마을회 등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회원들과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감염병 상황에서 지진이나 수해, 태풍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복합재난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발 빠른 대처를 위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순부터 덕진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투입되기 위해 발족한 전주시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에 나선 김동훈 대표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하나의 재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성격의 재난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재난대응에 맞서 올바른 대처법을 준비하고, 실제 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유기동물 입양자 교육

반려동물의 유기 문제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유기견 입양자들의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기 위한 전문교육에 나선다.

시는 다음 달 9일부터 30일까지 유기동물 입양자와 입양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자 교육을 실시한다.

반려동물의 재유기 및 파양을 막고 올바른 반려생활을 돕기 위한 이번 교육은 ▲기초교육 및 문제행동 교정 ▲영양교육 ▲건강교육 ▲명사특강 등 4개 주제로 총 5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추진되며, 교육 신청접수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김윤상 기자